



1 산타 크루즈 마운틴 지역의 포도밭 전경
2 릿지 와이너리의 와인메이커 Paul Draper
3 Ridge California Monte Bello

와인생산자들

릿지 와이너리 (Ridge Vineyards)

산타 크루즈 마운틴 와인 산지에 자리 잡고 있는 릿지 와이너리를 찾은 것은 2003년 8월 초. 산호세 시내를 거쳐 구불구불한 산언덕 길을 따라 정상으로 향했다. 바로 여기에 릿지 와이너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들 일행을 맞이해 준 양반이 1994년에 합류한 부사장 에릭 바우어(Eric Baugher). 와이너리의 와인 생산과 관련 철저한 시료의 분석과 와인 양조의 전통적 요소들을 체계화하면서 릿지 와이너리의 살림을 이끌어온 당사자였다. 직접 비탈에 들어선 자그마한 양조 시설에 우리들을 안내하고 숙성중인 와인을 배럴 테이스팅했다. 릿지 와이너리의 역사는 18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탈리아 커뮤니티에서 명망 높았던 의사 오



세아 페론(Osea Perrone)이 몬테 벨로 릿지 산 정상 근처에 있던 180에이커의 땅을 사들여 비탈을 다듬고 포도나무를 식재한데서 이 와이너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1940년대 신학자 윌리엄 쇼트(William Short)가 바로 페론의 소유 바로 아래 버려진 포도밭과 와이너리를 매입, 다시 까베르네 소비뇽을 심은 바 있다. 이후 새로이 소유주로 등장한 데이브 베니온(Dave Bennion)과 그의 세 파트너들(모두가 스탠포드 대학 연구소 출신) 열정으로 까베르네 소비뇽을 재배, 와인을 양조한 바 있다. 1960년, 최초의 양조를 가졌다. 당시로서는 최상의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1964년, 첫 진판델의 빈티지를 가졌고 1969년, 오늘날 릿지 와이너리를 세계적 관심을 끌게 한 와인메이커 폴 드레퍼(Paul Draper)가 합류해 옛날 페론이 일구었던 포도밭을 재복구하면서 릿지 와이너리의 명성을 쌓아갔다. 오늘날 이 와이너리는 세계가 가장 놀라워했던 1973년의 파

리의 심판, 그리고 2006년의 30주년 기념 시음회에서의 경이로운 성취를 이룩해 주목의 대상이었다. 가파른 비탈에 포도밭을 일구고 통나무집과 같은 양조장에서 세계적 명주를 내고 있는 릿지 와이너리의 철학을 음미해 볼만하다. '양조의 기술보다는 자연과 전통, 그리고 훌륭한 포도를 찾아 과실의 독특한 특성과 풍요함을 와인에 담아낸다.' 수입처 까브드뱅 문의 02-786-3136

바니 둔 와이너리 (Bonny Doon Vineyard)

이 와이너리는 1983년 랜달 그램(Randal Graham)에 의해 설립되고 캘리포니아 산타 크루즈에 입지하고 있다. 창업자 랜달 그램은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에서 plant science(식재학)을 마치고 이 지역의 떼루아 특성을 받아들여 프리미엄급 와인을 빚어내고 있다. 또한 바이오 다이نام릭 농법

으로 포도를 생산하고 스크루 캡을 전 제품에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주의를 그대로 실천하는 와인 메이커로 알려져 있다. 해서 그는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 이름난 와인 메이커의 반열에 들고 있는 것이다. 바니 둔 와이너리가 이번에 한국 시장에 선보인 '시라 르 푸세르 2005' (Syrah Le Pousseur)는 96%의 시라, 그리고 4%의 그르나슈로 빚은 와인. 2005년의 정제된 빈티지로서 시라의 깊은 맛과 향을 제대로 표출하고 있다. 감초, 제비꽃, 후추, 생강 등의 스파이시한 향, 그리고 미네랄과 부드러운 탄닌을 느끼게 하면서 훌륭한 밸런스와 멋진 피니쉬를 보여주어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지역의 탐할 떼루아를 그대로 받아들인 훌륭한 와인



1 Syrah Le Pousseur 2005
2 바니둔 와이너리의 오너 Randal Graham

1 Syrah Le Pousseur 2005
2 바니둔 와이너리의 오너 Randal Graham

